

완도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 다례제 봉행

고금 상정리 궐궁농악 공연·고금중 학생들 합창

충무공 업적·나라사랑 정신...사업비 1억8천만원

완도군은 29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묘당도 충무사(사적 제114호)에서 다례제를 봉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례제는 완도군과 사단법인 이충무공유적 고금도충무사보존위원회(위원장 정옥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완도군 무형유산 제3호인 고금 상정리 궐궁농악 공연과 고금중학교 학생들의 '충무공의 노래' 합창을 시작으로 엄숙히 다례제가 이어졌다.

초헌관은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아헌관은 이성일 완도경찰서장, 종헌관은 추광래 완도문화원장이 맡았으며 충무사보존위원회가

집례를 담당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신기념관과 현재 건립 중인 고금도 해전 전승 수군 체험관, 삼도수군 통제영 복원사업 등 충무공 선양 사업 현황이 소개됐다.

완도군은 국가유산청 지원 등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충무공 유적지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목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다례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세계사에 유례없는 23전 23승을 기록하고 조영 연합수군을 결성해 왜란을 승리로 이끈 탁월한 리더십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역사는 현재를 비추고 미



완도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묘당도 충무사(사적 제114호)에서 다례제를 봉행했다. (사진=완도군 제공).

래를 준비하는 힘이다"며 "고금도가 역사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무공 이

순신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강진군, 전국 당구 동호인

필수 방문지로 우뚝

강진군이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당구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이 방문하며 강진군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캐롬과 포켓볼 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75세 이상부, 60~75세 어르신부, 59세 이하부 등 세부 연령별로 나눠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여 지역 주민들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함께 호흡했다.

대회 기간동안에는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에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져 1억9천만원의 경제효과를 내며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은 대회 전부터 체육관 시설·안전 점검, 음식점·숙박업소 위생점검, 구제역 대책, 지역 문화행사 연계 등 담당 부서별 철저한 준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스포츠 도시 강진'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강진군은 전국 당구 동호인들에게 다시 찾고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와 스포츠 행사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진도개 페스티벌·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개최

진도개테마파크서 5월3~4일, 시상금 6380만원진도군은 오는 5월3~4일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진도개의 고향,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만남'이란 주제로 '2025 진도개 페스티벌'과 '제29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사진 명당(포토존)이 준비돼 있으며, 진도개테마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진도개 교감·달리기·장애물 달리기(여질리티) 등이 진행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장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에어바운스와 진도개 캐

릭터 색칠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참여행사를 마련했다.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는 지난 197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참가를 신청한 약 300마리 중 최고의 진도개를 선발한다.

동물 등록이 완료된 진도개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을 받은 진도개 4마리에게는 각각 4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는 등 50마리의 진도개를 선발해 총 638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국의 반려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올해 물김 위판고

1230억원...역대 최대

해남군의 2025년 물김 생산이 역대 최대 위판고를 달성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송지 어란 위판장을 마지막으로 올해 물김 생산을 종료했다. 그동안 8만 3991t을 생산해 123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37%(2만 2499t), 금액으로는 8%(91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시기에 겹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 김이 큰 인기를 끌면서 물김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해남 어민들의 여장사용 기간 만료로 지난해 양식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만호해역의 어장 이용 합의에 따른 김 양식 재개가 큰 힘이 됐다. 만호해역에서 재개된 김양식 면적은 1119ha로, 물김 1만6000여t을 생산했다.

서부취재본부

장흥 물축제, '물의 도시' 伊 베니스에 알린다



장흥군은 28일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회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가치 협력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협약식은 김성 장흥군수, 마씨모 안드레

올리(Massimo Andreoli)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장, 안남일 고려대학교 교수, 서진성 케이티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가치 협력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양측은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합의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인연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 분야의 폭넓은 교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씨모 안드레올리 위원장은 "내년 2월 베니스 카니발에 물축제 관계자를 공식 초청해 베니스에 한국문화와 물축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케이 페스트 2025(K-FEST with Venezia Comics 2025)에 참가해 물축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강진을 들썩이게 하는 '강진 불금불파'가 관광객으로 북적이며 흥행을 이어 가고 있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강진군 병영면의 고유 먹거리인 불고기와 함께 문화 공연과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상반기는 6월 7일까지 운영된다.

강진군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과 3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어린이 동반 가족이 행사장 내 불고기 영수증을 제시하면 모루인형, 모루투립, 파우치, 라탄 도어벨, 디퓨저 등 다양한 나만의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5월 2일에는 가족밴드 '에달밴드', 5월 3일에는 가정의 달 특별공연으로 '유대진 마술사'의 신기한 마술 공연과 하이아이트 EDM DJ 공연이 준비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 모으고 있다.

먹거리로는 병영돼지불고기, 파전, 주먹밥, 팝콘, 하멜촌 커피와 하멜촌 맥주 등 강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